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벽), 19:00(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세례를 축하합니다.(12월 04일)

구역반	성 명	세례명	구역반	성 명	세례명
04/01	문순심	마리아	15/04	정승원	미카엘
05/02	김형주	바오로	16/01	김선교	요한나
10/07	이수진	아녜스	21/01	박순옥	리디아
12/04	도정옥	마리안나	22/03	박성호	요 한
14/04	윤영기	야고보	구역외	박준식	로사리오
15/02	이선희	마리텔라	구역외	강혜미	드보라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2월 06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알 림

- 12월 05일(일) 2022년 본당 예·결산 심의가 있습니다.
- 12월 08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 12월 11일(토) 오후 1시 성탄 맞이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 12월 12일(일) 교중 미사는 새 신부님(허득진 다니엘) 첫 미사입니다.
- 11월 25일부터 목요일 10시 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른 변경 사항
 - 11월 1일(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성당 인원 50% 입장 가능(330명)
 - 레지오 및 소모임 시작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여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매일미사책 판매가 조정 안내
 - 2022년 1월호부터 조정
 - 일반판 : ₩1,300 / 특대판 : ₩1,800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다음 주(12월 12일)는 자선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대림시기 준비

- 대림절 신앙실천 봉투(대림저금통), 대림절 기도문, 판공성사표, 달력 등은 구역·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 구역 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판공성사
 - 11월 27일(토)~12월 19일(일) 매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본인의 고해만 간략하게 합니다.
 - 별도의 판공성사 일정은 없습니다.
- 2021년도 교무금 납부 및 2022년도 교무금 책정합니다.

●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19:40)

날 짜	제 목
12월 09일	생태적 회심 2
12월 16일	생태적 회심 3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11/01~11/30)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22구역 3반	이상경	미카엘	서울/쑥고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당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됩니다.
 - 12/23(목)까지 납부자 변경(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사무실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2017년 이후)하신 분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주일(12/12)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24일 ~ 11월 30일)

• 교 무 금		10,170,000원
• 주일헌금		4,266,200원
•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248,000원
• 사회복지 후원금(이원조)		3,500,000원
• 감사헌금	유○○50만원 정영자 1만원 박경제10만원 정애자 5만원 양○○ 5만원 이봉연10만원 박정순10만원 박영자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2/05	박혜선	도현만	정찬진	최승일	권태희
12/12	황원선	김영균	김진수	장익근	정홍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05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박승환
12/12	박승환	오광운	박형순	최석준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120. 다시 한번 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호소력 있는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다음의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이를 위하여 창출된 재화의 공동 사용 원칙은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것에 우선하는 자연권이자 타고난 권리입니다. 사유 재산권이나 다른 종류의 재산권을 포함하여 인간의 온전한 실현에 필요한 재화와 관련된 다른 모든 권리는 바오로 6세 성인의 말대로 “[이 권리의] 실현을 촉진시켜야지 방해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유 재산권은 창출된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에서 나온 이차적 자연권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기능에 반영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차적 권리들이 일차적이고 최우선시되는 권리들을 대체하고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이따금 발생합니다.

국경 없는 권리

121. 따라서 더욱 커다란 기회의 땅에서 태어난 다른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물론이고 자신의 출생지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외된 채 남겨질 수 없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계와 국경이 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권리를 지니는 것이 용납될 수 없듯이, 단지 출생지나 거주지 때문에 발전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기회가 누군가에게 더 적게 주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22. 발전의 목적이 소수를 위한 부의 축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발전은 “인권, 개인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국가들과 민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이나 시장의 자유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권리는 민족들의 권리, 가난한 이들의 존엄, 자연환경 보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3. 기업가들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고귀한 소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재화와 부를 늘릴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적 기술적 수단을 발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기업가들의 능력은 언제나 분명히 다른 이들의 발전과 특히 다양한 일자리 기회 창출을 통한 빈곤 퇴출을 지향해야 합니다. 모든 사유 재산권이 지상 재화의 보편 목적에 종속된다는 우선적 으뜸 원칙은 언제나 사유 재산권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는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